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정

2004 겨울호

경상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일본 도레이社 4억불 등 7억불 투자유치 성과

경상북도는 12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투자유치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경상북도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레이社 총 4억 불, 아사히글라스社 2억 6천만 불, 독일 ZF렘페더社 3천만 불, 일본 오키社 1천 2백만 불 등 7억불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둠으로서 전국 최우수 투자유치기관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되기까지는 이의근 도지사를 중심으로 투자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프로정신과 발로 뛰는 유치노력, 투자가 중심의 윈스탑 서비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표창수상에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투자인센티브 개발과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면서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남, 광주, 경남 등 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에서도 표창수상을 기대하면서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까지는 구미를 중심으로 IT, 전자 등 디스플레이산업에 클러스트가 조성되어 있고 포항을 중심으로 철강, 자동차, 신소재산업이 경쟁력이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민선도정 이후 “신경북비전”을 제시하고 도정의 역점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에 주력하며 중부내륙,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조성 등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풍부한 산업단지의 적기공급 등 실질적인 투자최적지 환경조성에 노력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Contents

winter

- 2 **경상북도, 사동팔달 교통요충지로 거듭나다**
 -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김천~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 4 **세계로 뻗어 나가는 '천마의 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영상 「화랑영웅 기과랑전」 해외 수출

- 6 **경상북도 투자유치설명회 대성황**
 - 대한민국 투자최적지, 경북으로 오세요!

- 8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 경북의 지역혁신 비전과 전략산업 선보여

- 10 **우리나라 대표 독도사이트 "사이버 독도"**
 - 독도가 더 가까워졌네!

- 12 **2004 경북리그**
 - 한해를 마감하는 「2004경북리그 시상식」한자리에

- 13 **경북-대구 상생발전 위한 윈윈 전략**
 - 경북도·대구시 지역인적자원개발 공동추진 협정 체결

- 14 **도정이모저모**
 - 2004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 열려
 - 2004 경북농정대상 포항시 곡강시금치 작목반 이등질씨 등 수상
 - 새로운 세상, 유비쿼터스-경북이 열린다!
 - 중국 영화회축사치구 풍형화 부주석 일행 경북도 방문

- 18 **한 권의 책**

- 19 **건강이야기-인체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

- 20 **2004 경북스타벤처기업을 소개합니다**
 - (주)프로소닉, (주)참테크, (주)티나라, MAIN-LCD, 바이오메디아(주)

- 24 **자랑스러운 경북인 - 2004경북농정대상 수상 이등질씨**
 -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 작목반' 전국 최우수 시금치 생산

- 26 **가 볼만 한 곳 - 1,600년 역사가 묻어나는 신라의 고찰, 김천 직지사**

- 28 **경북의 맛 - 김천 황악산 산채정식**

- 30 **도정단신**

- 31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4 겨울호(통권363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이의근 / 편집인 : 김재홍

발행일 : 2005년 1월 11일 / 인쇄처 : 홍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950-3058, 2031 FAX.956-4926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12월 7일 개통

1시간 50분 소요되던 길이 50분대로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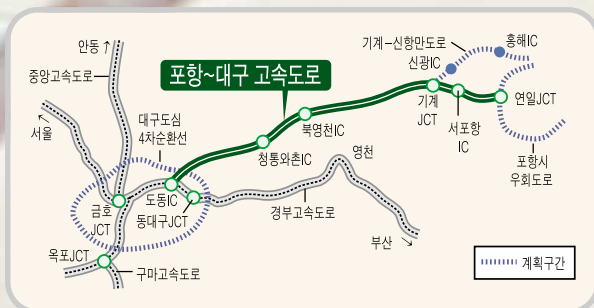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총연장 68.4km(4차로 35.8km, 6차로 32.6km)에 정부고속도로의 대구 도동IC에서 청통·와촌IC, 북영천IC, 기계JCT, 서포항IC, 포항영업소

로 진·출입하며, 와촌, 청통, 영천(상·하행)의 3개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다.

평소 1시간 50분 소요되던 거리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50분대로 단축되어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대 내륙공단인 구미공단의 첨단기술의 전자산업과 대구섬유산업 수출물동량의 대부분을 부산항에 의존하였으나, 현재 건설중인 영일 신항만이 완공되면 포항~대구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신속한 수송로가 확보되어 구미, 대구공단의 배후항 및 교역거점항으로 환태평양 경제권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김천, 구미, 칠곡, 상주 등 경북 내륙지역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청정바다인 동해안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인 횡감생선, 대게, 각종 건어물의 현지 판매와 수송 원활에 따른 유통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김천~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12월 15일 개통

경북 북부지역 개발 촉진 기대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여주 구간 총연장 151.1km(경상북도 구간 83km)가 지난 12월 15일에 완전개통 되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김천(아포)JC에서 서울까지 234km에 2시간 36분, 동서울까지는 247km에 2시간 45분이 소요되었으나,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까지 219km 2시간 18분, 동서울까지는 207km 2시간 11분으로 각 18분, 34분이 단축되어 물류수송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북 북부지역이 중부내륙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내륙 교통중심지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문경의 문경새재, 드라마 촬영장, 문경온천, 석탄박물관, 행글라이더 활공장과 상주의 경천대 등의 관광객 증대와 지역 농·특산물의 수도권 출하에 따른 물류수송비가 절감되고,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영상 「화랑영웅 기파랑전」 해외 수출

세계적 영화배급사인 시맥스 & 아이웍스사와 5년간 전 세계 독점 배급권 계약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주제영상 「화랑영웅 기파랑전」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세계적인 배급사인 시맥스&아이웁스사(Simex-Iwerks)와 계약금 80,000달러(약 1억원)에 순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는 런닝개런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5년 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독점 배급권을 인정하고 원작을 토대로 세계시장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버전으로 재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의근 도지사는 11월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카멜리아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시맥스&아이웁스사 CEO이자 회장인 마이클 니드햄(Michael Needham)과 부회장인 시오리 수도(Shiori Sudo)가 보낸 계약서에 서명했다.

200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했던 「화랑영웅 기파랑전」은 1년간의 제작기간과 17억의 제작비 등 다소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0% 국내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기간 중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호평 받았고, 2003년 11월 제작총책임자인 고육 박사(아주대학교 미디어학 부교수)가 미국 올란드에서 개최한 세계테마파크 산업박람회에 출품해 이번 계약을 체결한 시맥스&아이웁스사와 엔 웨이브사 등 세계적인 배급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이의근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무역센터협회 총회에 참석해 시사회를 가진 후 좋은 반응을 얻었고 시맥스&아이웁스사의 적극적인 계약 협상으로 해외배급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

시맥스&아이웁스사는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사무실을 둔 세계적인 메이저급 배급사로 세계에 약 250개의 단위극장과 연계되어 있어 이번 수출로 해외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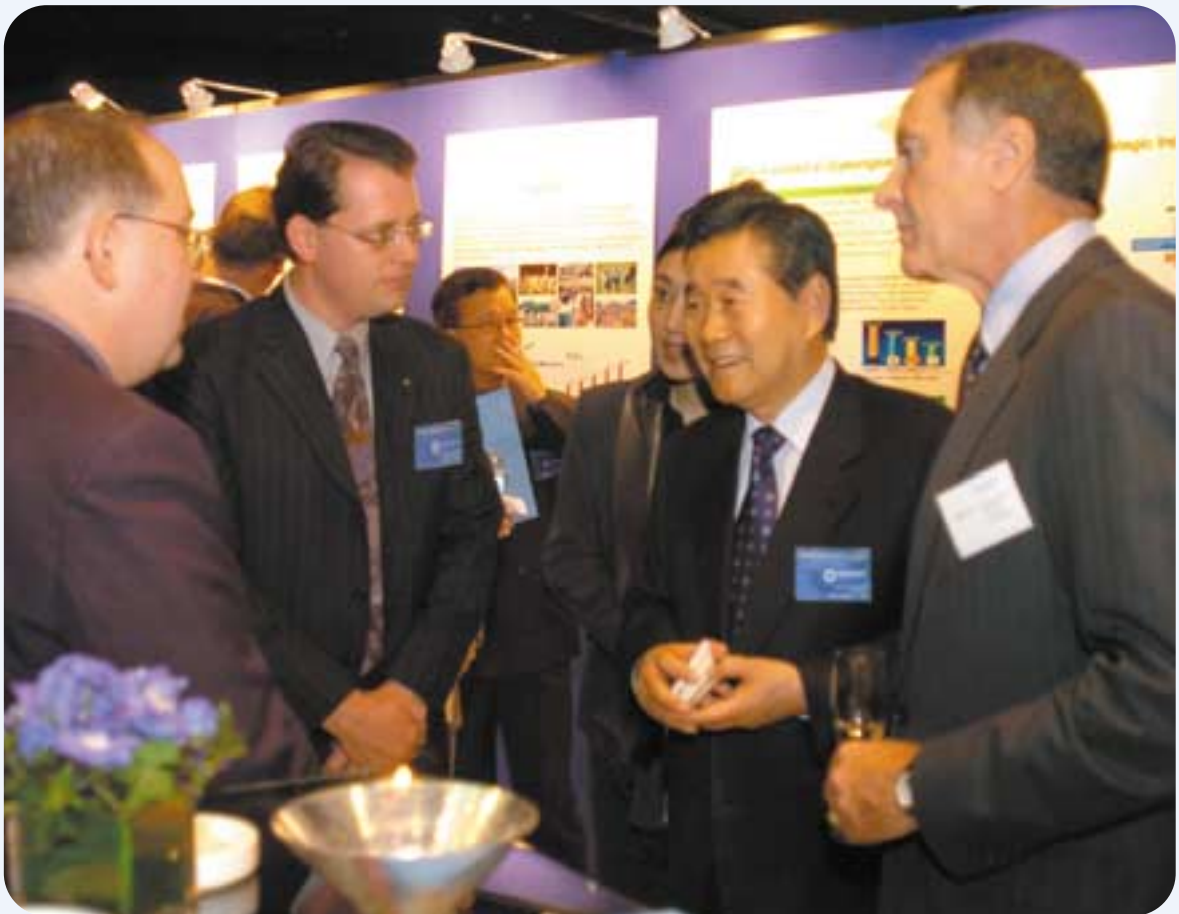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화랑영웅 기파랑전」 해외수출은 우리나라 최초로 3D Full애니메이션(HD급)을 해외에 배급한 사례로써 한국이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인정받는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신라'라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주제영상으로 제작됐던 「화랑영웅 기파랑전」은 신라의 영웅인 '기파랑'과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사랑, 위태로울 때 불면 나라를 구한다는 호국의 피리 만파식적 등 세 가지 신라 이야기를 모티브로 전혀 새로운 환타지 스토리텔링에 의해 3D입체영상에 맞게 구현한 작품이다. 



대한민국 투자최적지, 경북으로 오세요!

외국기업 CEO, 각국 대사, 투자컨설팅 관계자 등 참가 대성황



경상북도와 KOTRA가 공동주최하고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JC)이 후원하는 경상북도 투자유치설명회가 11월 1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려 200여명의 외국기업 CEO, 각국 대사, 투자컨설팅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랭크 햄썬크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과 맹일영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부회장, 이와마 신야(Iwama Shinya) 서울재팬클럽(SJC) 상무이사 등 한국 주재 외국기업 상공회의소 대표기관 모두가 참가하였고, Asahi Glass, Toray, Siemens, ZF, Smitomo, Sell Pacific Enterprise, Standard & Poor's 등 한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의 CEO와 컨설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상북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특히,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법인(AFTK) 부사장인 마사히로 테라오카(Masahiro Teraoka)씨가 직접 경북투자에 대한 경위와 경북투자환경, 경상북도의 혁신적인 윈스탑서비스 등에 대한 성공을 진솔하게 설명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투자최적지로서의 경북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경북투자설명회에서는 IT·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바이오·신소재 등 경상북도의 산업부문별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부지 무상임대와 국세·지방세 감면, 부지매입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분양가 차액보조제도 등 투자기업의 입지부담을 완화해 주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내 SOC사업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호주 맥쿼리은행(Macquarie Bank) 한국법인의 닉 반 겔더(Nick Van Gelder) 부사장과 경상북도간 투자협정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어, 경북의 SOC개발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합작증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지역 SOC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민선 3기 이후 '경제제일도정'을 천명하고 이의근 경북지사가 세일즈맨이 되어 직접 외국기업 본사를 방문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침체와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만 아사히글라스(일본) 1단계 2억6천만불, 도레이(일본) 4억불, ZF렘페더(독일) 3천만불, 오키(일본) 1천2백만불 등 총 7억불의 외자유치를 성공시키는 개가를 이루었으며, 현대중공업 조선블록공장 2천억원, 포항 영일만신항 3,380억원, 영덕 풍력발전 580억원, (주)삼광 120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의 국내기업을 유치하였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클러스터화하여 IT, BT, NT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고, 윈스탑 행정서비스로 투자와 관련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의 지역혁신 비전과 전략산업 선보여

내년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경상북도 · 대구 공동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혁신의 비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의 모습과 추진과정 등을 선보였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인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 전시관 내에 환동해경제권의 혁신교류거점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미 디지털 밸리, 안동 · 상주 등 북부지역 생물한방산업 클러스트 조성, 포항 등 동부연안권 신소재 부품산업 집중 육성, 경주 · 안동 · 고령지역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4대 권역별 전략산업을 시청각 영상물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출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편 경상북도는 내년에 열릴 2회 박람회를 대구시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경투
국 미래입니다

KAICX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REATIVE EXCHANGE

2005년 대구제1회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최도시권 - 대구·KICIT

미래산업의 중심지

www.jeonnam.go.kr

독도가 더 가까워졌네!

사이버 독도마을 조성,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 마련

경상북도는 2001년부터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도사이트인 “사이버 독도” 시스템의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10월 2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했다.

사이버 독도는 경상북도가 지난 2001년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관광분야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금까지 10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하는 등 독도사랑 운동의 구심점이자 독도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위성인터넷을 설치, 독도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이버 독도마을을 조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사이버 독도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독도처럼 사이버 공동체도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 마을주민이 될 수 있고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사이버 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독도마을 주민들은 디지털 명함을 만들 수 있고, 웹리포팅 기능을 이용하여 한번에 여러 모양의 디지털 명함을 출력하여 개인명함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이버 독도사이트는 총 5개 분야 3,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콘텐츠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노인·주부 등 정보소외계층도 쉽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독도홈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합성지원과 심플한 메인 화면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원클릭만으로 쉽게 독도의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다.

독도의 주요시설, 지리정보, 독도의 가치, 관광안내 등 독도를 소개한 「우리독도」코너, 삼국시대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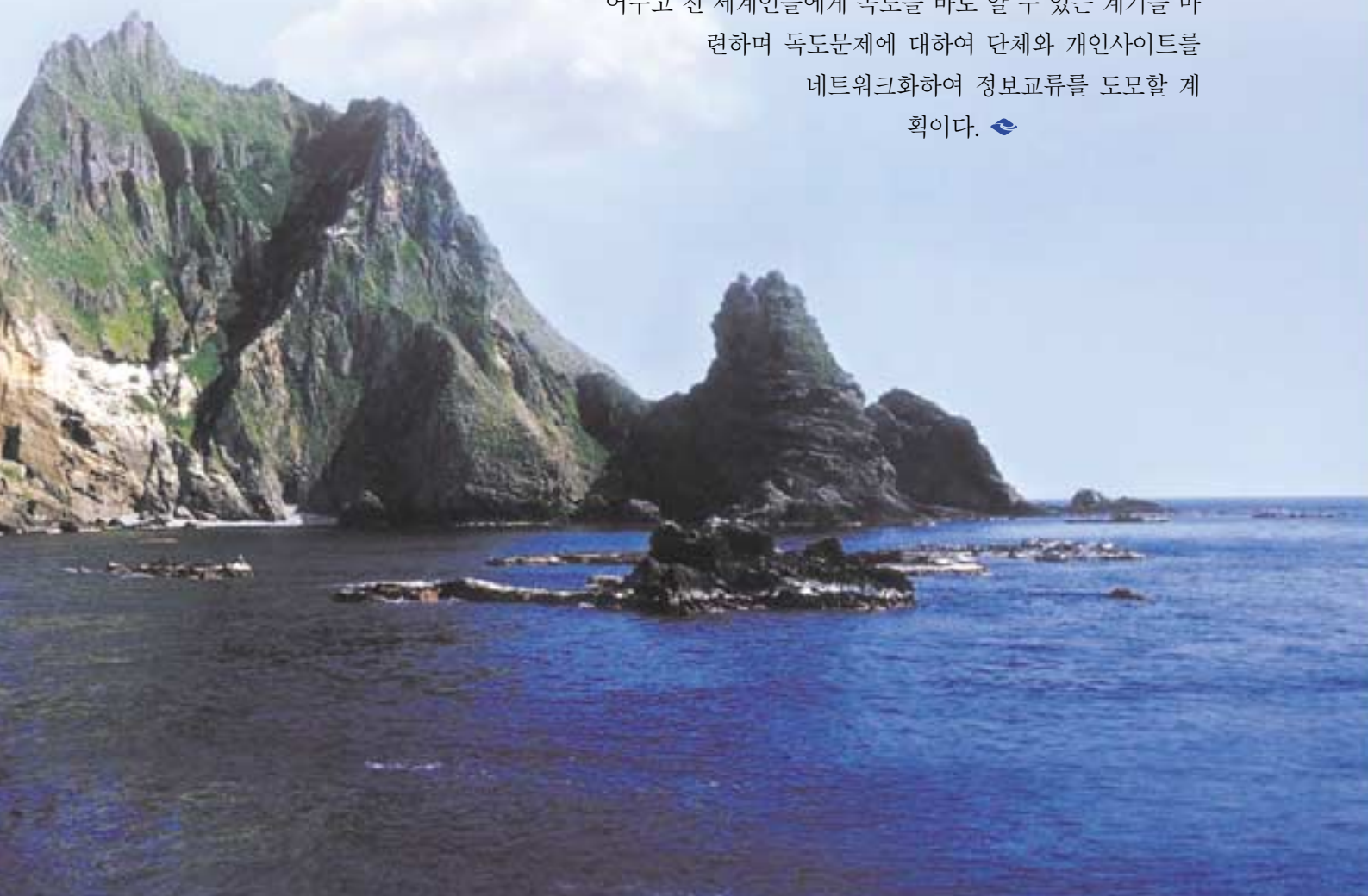
현재까지 독도에 관한 역사자료, 역사인물, 전설 등을 소개하는 「독도 역사」코너와 「자연생태」, 「독도자료실」 등에는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 해양생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고, 보도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를 내용별로 자세히 분류하였다.

인터넷 주소 입력줄(URL)에서 한글로 “독도”라고 입력하면 경상북도의 사이버 독도가 검색되고,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경우에도 최상위에 검색됨으로써 쉽게 사이버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



“독도”라는 한글키워드는 한글인터넷주소 제공회사인 넷피아(netpia)가 2004년 9월에 무료로 기증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독도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자료발굴과 독도관련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독도문제에 대하여 단체와 개인사이트를 네트워크화하여 정보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2004경북리그 시상식」 한자리에

우승 포항 백호클럽, 준우승 영주 풍기인삼클럽



경상북도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 4강신화의 국민적 축구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동호인 축구클럽 「경북리그」를 창설한 이래 올해 두 번째 리그를 진행하여 한해를 마감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2004 경북리그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23개 리그 275개팀 1만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장 7개월간의 예선리그를 거쳐 최종 32개팀이 확정되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열띤 본선대회 경기를 통해 우승팀을 가려 포항의 영일만리그 백호클럽과 영주 선돌이리그 풍기인삼클럽은 지난 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시상식은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장, 도의회 의장, 도의원, 축구관계 인사, 시상팀 수상자와 임원,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우승은 포항 백호클럽이 시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준우승한 영주 풍기인삼클럽이 시상금 150만원과 트로피를 받는 등 본선대회에 진출한 32개 팀에게 시상금 2천2백만원과 트로피를 각각 수여하였으며, 개인상으로는 최우수선수상에 포항 백호클럽 권진성씨 등 6개 부문을 시상하였다.

경북도 · 대구시 지역인적자원개발 공동추진 협정 체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지원센터로 지정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역의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시·도는 11월 23일 대구은행 본점3층 회의실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대구시장, 시·도의회 의장,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단체장과 관련 정책담당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협정조



인 및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지역인적자원정책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장에게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서를 교부하는 한편 지원센터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시·도는 지역의 혁신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키로 하고, 2005년 4월까지 지역장기발전계획 등을 감안한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계획, 단계별 인적자원개발전략 등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인적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초자료 조사 연구 및 D/B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도는 지역 공동사업의 추진으로 지역혁신협회의 공동구성을 비롯한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의 대구·경북권역 통합으로 20억원의 중앙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4일 동안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지역혁신박람회에 시·도가 공동으로 부스를 설치하였고, 2005년 지역혁신박람회 공동유치, 밀라노 프로젝트 경북참여, 대구지하철의 경산 연장합의 등 광역적인 추진이 필요한 분야와 공동추진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경제문화공동체로서 지역간 협력을 통한 정부 인센티브의 확보 등 지역발전에 상호협력을 공조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지방분권과 자립형지방화시대 각종 지역간 상생발전이라는 윈윈 전략을 더욱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004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 열려 김기덕 영화감독 등 26명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



「2004 경상북도민의 날」 행사가 10월 22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시장·군수와 각 지역 도민회장, 농어민, 근로자, 노인, 장애인 등 각계 각층의 도민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의 명예를 드높인 26명에 대한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과 함께 경북의 경제와 문화로 동북아 중심 자치단체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는 경북 화합 발전의 불을 점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300만 도민의 화합과 결속

을 다졌다.


특히 올해에는 영화감독 김기덕(봉화), LG필립스 LCD상무 이한상(구미),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장지원(김천) 등 3명은 경북을 빛낸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경북 혁신의 나아갈 방향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지다 경북 혁신현장 제정 선포식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일 도청 전정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혁신의 나아갈 방향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경북 혁신현장 제정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버려야 할 병폐 1개씩을 풍선에 써서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선포식 후 8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임파워링(Empowering) 연수회」를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4기에 걸쳐 나누어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진행하였다.



연수회에서는 행정환경변화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혁신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혁신마인드를 공유하고, 혁신과제 발굴과 실천을 위한 분임 토의 등을 가졌다. 

2004 경북농정대상 포항시 곡강시금치 작목반 이등질씨 등 수상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후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 펼쳐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9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소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2004년 경북농정대상을 시상식을 가졌다.

2004 경북농정대상 전체 대상은 우리 도 우수농산물 1호로 지정된 바 있는 포항시 곡강시금치 작목반 이등질씨가 수상하였으며, 식량생산부문 영덕군 안상곤, 친환경농업부문 상주시 최준혁, 과수부문 영주

시 이영호, 특작·화훼부문 군위군 임정식, 농산물유통·가공 문경시 김상준, 축산부문 안동시 강호재, 농촌개발부문 경주시 이우근, 연구·지도부문 고령군 이종호, 여성농업인부문 의성군 이순남씨 등이 선정되어 도지사표창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과 아이디어제품 등을 전시하고 기념행사 후 동성로로 이동하면서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출범 국토의 655km 동해안축 개발 본격 추진

경상북도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 동해안에 접한 3개 시·도가 본격적인 동해안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월 8일 경북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동해안지역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광역 협의체를 출범,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국토개발 축을 동해안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해안을 따라 영일만 신항 조성, 동해 중부선 부설 등 동해안지역 시·도가 힘을 모아 국가차원의 집중 개발을 촉구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




새로운 세상, 유비쿼터스-경북이 열린다! 「유비쿼터스-경북」선언 및 심포지엄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2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유비쿼터스IT코리아포럼 회장, 대학교수, 기업체 및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비쿼터스-경북」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비쿼터스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사물·환경 속으로 스며들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신개념의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유비쿼터스 인

프라 조기구축, 관련산업 육성, 유비쿼터스 도정 구현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유비쿼터스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홍보관과 유비쿼터스 전시관을 운영, 2004년도 경상북도 S/W대전 입상작 13개 작품과 중소기업 IT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150개 부스를 설치·전시하는 등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상과 첨단 IT산업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경북체육, 2006년 전국제패 꿈꾼다 제85회 전국체전 유공자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12일 경산시 신교동 경북체고 체육관에서 이의근 도지사,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단체장과 도의원, 도·시군 체육회 임원, 전국체전 입상 선수·지도자,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5회 전국체전 유공자 시상식과 2006년 전국제패 출정식을 갖고 경북체육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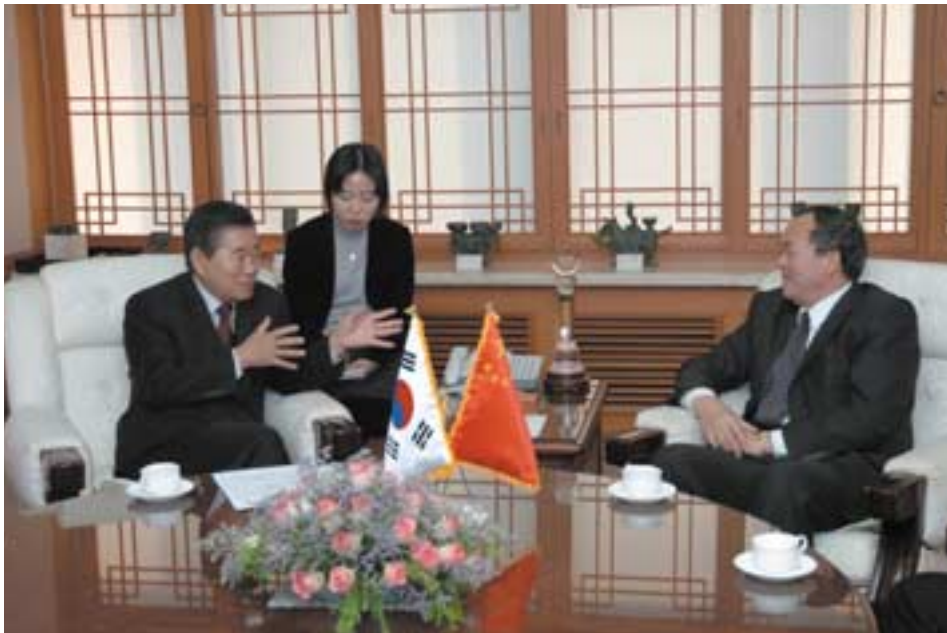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대회 3관왕에 오른 경북도청 수중팀의 배소현 선수와 대회 5연패를 위업을 달성한 경산시청 육상팀의 이강민 선수 등 2명에게 특별유공 표창과 격려금을 전달하였으며, 종합입상 경기단체장과 전무이사 20명 등 입상지도자들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와 서울, 개최지인 충북에 이어 올해 목표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려 전국 체육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풍형화 부주석 일행 경북도 방문 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산하수종말처리장 벤치마킹

경상북도와 지난 9월 6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는 중국 영하회족자치구의 풍형화(馮炯華) 부주석을 비롯한 일행 5명이 보건·환경분야의 교류와 벤치마킹을 위하여 11월 24일 우리 도를 방문하여 이의근 도지사와 양 지역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풍형화 부주석 일행은 본격적인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 체계적인 의료진료 절차와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체험하였으며, 하수종말 처리를 위해 2단 혐기호기(嫌氣好氣)처리공법을 도입하여 질소와 인을 제거하고 있는 최신기술의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을 벤치마킹하였다. 



올해 경북농업명장 잠업부문 최필환씨, 원예부문 박진순씨 일반농가 대상 각종 농업교육시 기술교육 강사로 활약

올해 경북농업명장으로 잠업(누에)부문의 최필환씨와 원예(참외)부문의 박진순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북농업명장이란 우리 도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신기술 영농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성공한 최고 수준의 농업인을 품목별로 선정하는 제도로써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경북농업명장으로 선정된 농업인 2명에게는 도지사의 경북농업명장 인증서가 수여되며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농업교육시 기술교육 강사로서 역할과 본인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운영비 1천만원씩이 각각 지급된다. 

국내 최초 스토리북 트래블 (Storybook Travels) 시리즈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 - 유럽편



동화나 소설의 실제 무대가 되었던 명소를 찾아가는 스토리북 트래블 시리즈로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 - 유럽편」이라는 책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20여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빈 여행사 진작가인 이형준이 15년 전 「동물음악대」의 무대로 알려진 독일의 브레멘을 시작으로 동화마을 50여 곳을 적게는 1-2회, 많게는 5-6차례 이상을 여행하며 찍은 270컷의 아름다운 사진과 22곳 동화마을에 대한 글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의 본격 동화 여행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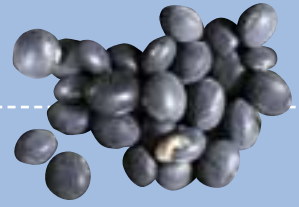
지금도 사랑받는 고전 동화 「피터팬」과 「피노키오」, 「피터 래빗」,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삐삐 똥스타킹」, 「닐스의 이상한 여행」등과 2000년대 어린이들을 열광시킨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을 명작 동화 20편과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과 그림 형제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유럽의 구석구석을 수 차례 직접 여행한 경험을 살려 가는 길, 숙박, 근교 명소 등은 물론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까지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어 여행 안내서로도 모자람이 없다.

특히 동화마을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박 8일, 14박 15일, 29박 30일 동안 동화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자세하게 짜서 소개하고 있다.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하나 둘 늘어나고 몸은 피곤해지고 일상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 어린 시절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던 동화속 주인공이 되어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꿈속에서 만나던 반가운 친구를 다시 보는 기쁨을, 아이들에게는 지구 저 편에 있을 동화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해 줄 것이다. 



인체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알고 먹자!

나쁜 공기, 먼지, 각종 식품첨가물, 농약, 담배... 현대인의 생활은 하루하루 각종 독소를 먹고사는 생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에 쌓인 각종 유해물질을 없애는 메뉴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풀어주는 황태 황태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숙취를 해소하여 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또 일산화탄소 중독을 풀어줄 정도로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 황태를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지느러미와 뼈만 발라내고 모두 먹도록...

중금속 배출 등 해독 효과 뛰어난 검은콩 검은콩에 함유된 피트산은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방에서는 검은콩과 감초 달인 물이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해독제. 검은콩은 냄비에 물을 붓고 팔팔 끓여서 익힌 다음 요리에 이용한다. 콩을 끓인 물은 버리지 말고 밥을 지을 때 이용하면 좋다.

중금속 없애는 도토리묵 도토리묵은 인과 비타민 B1, B2가 풍부하다. 특히 도토리에 함유된 아콘산이란 물질은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도토리묵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용한다. 그레야 목에 함유된 불순물이나 이물질을 빼낼 수 있다.

니코틴을 쏙 빼주는 다시마 다시마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을 없애주는데 좋다. 또 다시마 속의 일긴산이라는 성분은 중금속과 발암성 물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다시마는 표면에 묻은 흰 가루, 즉 염분을 잘 닦은 다음 이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짠맛과 떼은맛이 난다.

약물중독과 염증질환에 좋은 녹두 로이신, 라이신, 발린 등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레산, 아밀라아제 등 효소가 많다. 해독작용이 탁월하여 약물중독이나 염증질환에 효과가 좋다. 녹두는 미지근한 물에 4시간 이상 불린 후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긴 다음 사용한다. 껍질을 벗긴 것을 구입했다더라도 역시 불려서 이용한다. 🐟




(주)프로소닉

(주)프로소닉은 1990년 설립하여 2000년 8월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의료용 초음파영상 진단기의 탐촉자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는 초정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이다.

의료용 초음파 영상진단기 탐촉자는 초음파진단기의 핵심부품으로서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켜 인체조직으로부터 반사된 초음파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처리신호로 전환하는 장치로 물리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및 의학 등이 총집약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용 초음파 영상진단기 탐촉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으로 (주)프로소닉이 자체 연구개발로 국산화에 성공, 국내 유일의 의료용 초음파영상 진단기 탐촉자 생산업체이다.


(주)프로소닉은 그간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탐촉자를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산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통하여 현재 단일공장으로서 세계 10위 이내에 랭크되어 있는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주)참테크

(주)참테크는 세계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인 Anycall의 case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2000년 2월에 참테크로 시작하여 2001년 7월 법인 등록, 2003년 5월 신사옥을 준공하는 등 내실있게 성장해온 중견기업이다.

또한 ISO9001, ISO14001, TL9000, Six-sigma 등의 활동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량기술기업으로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 생산 Line을 구축하여, 보다 안정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설립 초기인 2000년 7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고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과 2004경상북도 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꾸준한 기술력 강화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티나라

(주)티나라는 선생님을 위한 다양한 강의자료, 학생에게는 재미있는 공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매체를 제공함으로써 현행 초등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0년 11월 뜻있는 선생님 20여명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주)티나라의 주요 상품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웹자료를 제공하는「티나라(www.tnara.net)」와 학생 스스로가 인터넷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학습자 주도형 수준별 맞춤 학습 콘텐츠’인 「하우키(www.howkey.com)」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1위로 선정된 교수용 사이트인 ‘티나라’는 현재 전국 13만명의 초등학교 교사 중 약 10만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용 사이트인 ‘하우키’도 현재 꾸준히 유료회원이 늘어나고 있다.


2002년 3월 문화관광부 장관상인 ‘디지털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 4월 유료화를 시작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이다. 



MAIN-LCD

DISPLAY 사업 구조가 브라운관에서 TFT-LCD, PDP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DISPLAY 업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많이 늘어났다. 제조사의 원초적 불량 및 모니터 제조사의 취급상 불량, 일반 소비자의 사용상 불량제품들이 대부분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MAIN-LCD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LCD 제품의 굽힘, 종횡선, 백화현상, 회로, 램프교환, FPC 수리 등 불량들을 수리하여 다시 제조사와 일반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 금액적인 손실의 방지와 산업 폐기물의 감소로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소형기준 월 10,000장, 대형기준 월 5,000장을 수리를 할 수 있는 크린룸을 갖춘 공장을 구미 비산동에 설립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아(주)

바이오메디아(주)는 인공토양 전문업체로서 육묘용 상토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부농팟트, 부농원예용상토, 부농수도용상토 등 20여가지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제품화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바이오메디아는 인공토양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인공토양산업의 효시인 부농산업사를 1978년 설립, 1980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0년 지금의 바이오메디아(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바이오메디아’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토양’ 혹은 ‘활성신소재’라는 뜻으로 세계최고의 생산성이 극대화된 배지 및 토양환경 제품을 만든다는 기업이념을 담고 있다.

바이오메디아는 1998년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특허기술 개발기업으로서 업계최초로 벤처기업으로 공인 받았고, 1999년 ISO9002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동종업계 최초로 코스닥등록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번에 2004 경상북도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우량기업이다.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 작목반’ 전국 최우수 시금치 생산

포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7Km 남짓 올라가다 위치한 포항시 흥해읍 곡강2리,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푸른 동해바다와 어울려 녹색의 시금치 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마을’, 70여 가구가 용기종기 모여 특산물인 시금치를 재배하여 인근 어느 마을보다 농가소득이 높은 잘 사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시금치 농사를 시작하여 지금의 곡강유기농시금치를 전국 일등 농산물로 만든 사람이 있다. 30년이 넘게 고향을 지키는 농사꾼으로 살아온 이등질(58)씨,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 작목반’ 회장이자 곡강2리 마을위원장인 2004년 경북농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장본인이다.

1970년 군대생활을 마치고 귀향하여 농사를 시작한 이후 갈대밭과 늪지, 바닷물이 침범하는 마을의 농지를 정비하기 위해 경지정리를 추진하였고, 마을에서 처음으로 농사의 기계화를 위해 이양기를 보급 받아 직접 기술을 익혀 10여년간 마을의 모심기를 도맡는 등 남다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후 1989년부터 이웃 농가를 설득하여 시금치작목반을 구성하고 해변의 불모지인 모래밭을 불하받



아 일구어 시금치농사를 시작하였으나 몇 년간 실패를 거듭하는 등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지역의 기후와 환경적 요인에 맞는 농사법을 익혔고 마침내 1993년에는 시금치로는 전국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1995년에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유기농산물’이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기존의 농약과 화학비료를 시비하는 관행농업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제반 비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는 9월말에 파종하여 10월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15cm 정도 자랐을 때 수확하여 출하하는 등 제철에 맞추어 노지에서만 재배함으로써 비닐하우스에서 일반 관행농업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에 의해 각종 미네랄이 시금치에 공급되어 맛과 향이 뛰어나고 잎이 두꺼워 운송과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잘 되지 않는 등 타지역의 시금치와 비교 할 수 없는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는 일반 시금치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형매장인 E-마트에 납품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넘쳐 물량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한다.

이 마을 70여 가구중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 작목반’에는 28가구만이 속해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일부 노인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시금치 농사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금치’ 하면 통하는 마을이 되었다.

30여년 전 포항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던 이 곳이 고향을 사랑하며 희망을 가꾼 한 농부의 남다른 노력으로 이제 전국에 이름난 마을이 된 것이다. 올해부터는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포항곡강유기농시금치마을’을 만날 수 있다. (<http://gokgang.invil.org/>)



황악산의 수려한 산세에 묻혀 있는 직지사

경내 산중다원에서 마시는 차 한잔의 여유도 색다른 경험



구름도 쉬어 넘는다든 추풍령 아래 첫 동네인 김천시, 추풍령을 넘어 김천으로 내려오는 국도 4호선 오른쪽에 있는 황악산 자락에는 신라의 고찰 직지사가 있다.

황악산의 수려한 산세에 묻혀 단아한 풍채를 자랑하며 산사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직지사는 신라에 불교를 전해 준 아도화상이 눌지왕때인 418년에 창건한 사찰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세워져 오랜 연륜을 지니고 있다.

이 절을 창건한 아도화상이 절터를 찾다다니다가 금오산 위에서 이 절터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푹 바로 가리켰기 때문에 ‘직지(直旨)’라는 이름이 생겼다고도 하고,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에 능여대사가 절을 확장하면서 손으로만 측량해 ‘직지’라고 하는 유래를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또한 사명대사와 같은 큰스님을 배출하였고, 율곡 이이가 이 절의 사적기를 편찬했을 정도로 이름난 사찰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시기 마흔 채가 넘었던 건물들은 왜적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이후 간간히 찾아오는 아낙들의 기도처 정도로 쓰이다가 1966년 복원을 시작하여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거쳐 대웅전, 나한전, 관음전, 명부전, 사천왕문, 일주문 등 현재의 모습을 찾았다.

직지사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정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흙, 마, 산나물 등을 좌판에 펼쳐놓은 할머니들이 오가는 이들을 붙잡는다.


입장권을 구입하고 입구로 들어서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며 산책하기 좋은 길이 이어진다. 일주문을 지나 사천왕문을 거쳐 경내로 접어들면 절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직지사에는 대웅전 앞 삼층석탑과 비로전 앞 삼층석탑 등 보물들이 여럿 있고, 대웅전 안을 장식하고 있는 삼존불탱화도 보물도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절의 볼거리는 천불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비로전이다. 여기에는 고려시대에 능여대사가 속리산의 승려 경잠을 데려다가 경주 남산에서 캐낸 옥돌을 다듬어 만들었다는 불상 천 개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불상 가운데에는 알몸의 동자상이 하나 있는데 첫눈에 이 동자상을 찾아내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 찾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직지사 경내를 돌아 나오다 보면 산중다원이 있어 산사에서 차를 즐길 수 있다. 산사에 앉아 은은한 향의 녹차나 진한 향의 한방차, 대추차 등을 음미하는 것도 기억에 남을 일이다.

절 마당에서 오른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거대한 병풍을 세워 놓은 것 같은 황악산이 눈에 들어온다. 웅장하면서도 번듯한 산세로 등산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산이다.

등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직지사 입구 앞에 지난 4월 조성된 직지문화공원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 잘 가꿔진 잔디밭에 놀이시설과 음악분수 등을 설치해 놓았으며, 새로운 볼거리로 주차장 앞 직지사우체국에서 직지문화공원 구간을 오가는 관광마차를 운영키로 했다는 뉴스가 있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 





산에서 직접 채취하는 무공해 자연 식품으로 인기

산더덕, 고사리, 곰취, 도라지 등 다양한 산나물로 한 상 가득


김천에서 서쪽으로 12km, 황악산 기슭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직지사는 주위의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등 주변 경관이 뛰어나서 산을 즐기는 등산객은 물론이고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직지사 앞 상가단지에는 황악산에서 나는 능이버섯, 짜리버섯, 산더덕, 가죽나물, 고사리, 곰취, 도라지 등 다양한 산나물을 계절에 따라 채취하여 버섯 종류는 염장하고, 나물 종류는 잘 말리는 등 손질해 두었다가 재료로 쓰는 산채음식점이 많다.

산에서 직접 채취하는 무공해 자연 식품으로 영양가가 풍부하고 고혈압·당뇨병에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윽한 맛으로 유명하다. 산 좋고 물 좋은 전국 유명산 인근 고장이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산채음식 식당이지만 특히 황악산 산채는 향이 진하고 색이 좋아 미식가들 사이에 명성이 높다.


이 곳 산채정식에는 취나물 무침, 더덕구이, 고사리볶음, 표고버섯볶음, 도라지볶음, 두릅회, 우엉조림, 촌두부, 참나물무침, 도토리묵, 능이버섯회, 느타리버섯볶음, 가죽무침, 비지찌개, 김치·호박·감자·고추전 등 갖가지 무침과 볶음, 버섯회 등 밑반찬은 물론 석쇠에 구운 불고기도 상에 오르는데 푸짐한 상차림에 한번 놀라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으로 두 번 놀라게 된다.

직지사 입구 상가단지에는 산채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40여개 식당이 있어 저마다 맛갈스러운 솜씨를 뽐내고 있는데 어느 집이나 큰 차이가 없다. 가격 또한 산채한정식 10,000원으로 비슷하다. 


물가관리중앙평가 최우수도 선정

경상북도는 2004년 상반기 행정자치부 물가관리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표창과 시상금 8백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 도는 7년 연속 우수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중국시장개척단 1,804만불 계약 성과

경상북도는 중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중소기업체의 수출판로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지역의 12개 중소기업체가 참여한 '중국지역 시장개척단'을 중국 상하이, 무한, 대련 등에 파견하여 1,804만불의 계약과 4,632만불의 상담성과를 올렸다. 


소비자 초청 농촌사랑 체험교육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10월 25일 대구시 북구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 80명을 초청하여 경상북도 생활개선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영덕군 창수면 인랑리 보리골 전통테마마을에서 고구마·땅콩캐기, 사과수확 등 영농체험과 마을 종택에서 예절교육을 하는 등 농촌사랑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세계한상대회 참가 활발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경상북도는 제주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3회 세계한상대회에 참가, 1천여 채외동포기업인들에게 경상북도 투자환경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 사방사업 관계자 경북도 방문

경상북도의 사방사업 시공기술력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홍보됨에 따라 10월 29일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국 사방부 사카구찌 보전과장 등 일행 8명이 한·일 토사재해방지 기술회의차 도내 사방사업현지를 방문,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지인 김천시 농소면 봉곡 지구와 구미시 오태동 지구의 사방복구현장을 둘러보았다. 

『안전관리현장』선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현판식 개최

경상북도에서는 11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영재 정무부지사 주재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와 관련하여 제정된 안전관리현장을 선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문화재 복원용 금강송 키운다!


경상북도에서는 조선시대 궁궐, 누각, 사찰 등 대형 목조건물의 대들보로 사용되던 금강송 후계목을 식재하여 150년 후에 문화재 복원용으로 사용하고자 금강송 식재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연환 산림청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용대 행정부지사, 교수, 시인, 문화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송 후계목 1,200본을 심었다. 



상임위원회의 현지확인 위주 의정활동 펼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 도민 편익증대 도모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10월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 각종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각 분야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와베트남타이응엔성간 자매결연체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현지확인 위주 의정활동으로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가 정보화마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장, 수해복구공사현장, 유교문화권개발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등 도민의 생활 편익증대를 도모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운영위원회 타 시·도의회 비교 방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3명은 의회운영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남·전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타 시·도의회 비교 시찰에 나서 「2004 광주비엔날레」를 참관하고 전남도청 신청사 신축공사장, 부산 광안대교 등 주요사업현장과 시·도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사전자료 준비와 각 사업장에 대한 정보파악으로 심도 있는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소재 고추종합처리장과 울진군 왕피천면에 소재한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행사장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건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추진과 현황,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도정 각 실 · 국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정례회를 개최,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도승희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 · 국 및 도내 각 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각 실 · 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처리했다.

이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3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05년 경상북도 본예산 2조 9,913억 1,400만원




한편 2005년도 경상북도 본예산은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조 9,913억 1,400만원중에서 29건 50억2,800만원을 삭감하고, 26건 15억8,8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순삭감액인 34억4,0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도정 질문 요지




권종연 의원(기획위원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켜 선택과 집중전략에 근거하여 지역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 시·군별 특성과 입지조건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전략의 수립과 협의·조정 에 대한 도의 대책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은, 대구공항위 국제직항노선 증설과 관련된 도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석호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도내 공무원 9명이 파면·해임됐는데 사전 대화나 설득작업 있었나, 공무원노조와 도민의 권익을 위한 교섭대책은, 관광 레저산업의 활성화 위해 소형항공노선망 구축에 대한 견해, 도내 40%에 가까운 실업계 고교가 정원 미달로 학생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김순건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지방공기업 대표선임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지방공기업 대표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의회내에 도입할 것을 제안, 2005울진친환경농업 엑스포의 경우 도비 지원이 3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70억원의 17%에 불과한데 지원금을 늘릴 방안은, 대기업 직원과 도청 직원간 인사교류 등을 실시할 의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신영호 의원(농수산위원회)**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형임용제의 확대시행 방안은, 다면평가제도의 추진실적과 새로운 인사모델 정립을 위한 ‘인사운영테스크포스팀’의 실적은, 공무원 탄력근무제도의 시행 촉구, 도내 23개 시·군 14만1천684세대가 TV 난시청 지역으로 문화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한방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원식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법률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전국광역단체장협의회에 이를 제안하여 공동 추진할 의향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책임자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낙후된 시·군 지역에 경제활력소를 제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도의 기관과 부서를 이전할 의향 등을 질문했다.

**김희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도비지원사업 추진시에 도내지역 낙후정도에 따라 차등비율로 재정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 경북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해 지역실정에 맞게 보호면적을 축소 조정할 의향, 도내 치매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 향상 위한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운남성 인민대회 상무부주임 일행, 경상북도의회 방문

12월 20일 오후 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梁公卿(량공경) 부주임 일행 4명이 이철우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방문, 양도·성간의 문화, 체육, 관광, 경제 등의 우호교류에 대해 협의했다.




200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194회 임시회를 개최, 이의근 도지사와 도승희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된 2004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 1천148억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함으로써 200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경상북도의 올해 총예산규모는 2조9천770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8천621억원 대비 4%가 늘어났다. 

2004년 경상북도의회 송년회 가져



12월 27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 이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도의원 전원과 이의근 도지사, 도승희 교육감, 김석기 경북지방경찰청장, 간부 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04년도 경상북도의회 송년회」를 갖고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운문사의 처진소나무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180호
 지정일자 : 1966. 8. 25
 소유자 : 운문사
 소재지 :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68-7외

이 나무는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으나, 높이 6m, 가슴높이 둘레 2.9m(밑둥치 둘레 3.45m)이며 가지의 길이는 동쪽으로 8.4m, 서쪽으로 9.2m, 남쪽으로 10.3m, 북쪽으로 10m인 소나무로 가지가 축쳐진 품종이다.

지상 2m 높이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지주

로써 지탱하고 있으며, 현재 이 나무의 수형이 매우 좋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나무의 보호를 위해 매년 봄 음력 3월 3일을 전후하여 막걸리 20말을 물에 타서 뿌리 가장자리에 부어 주고 있다고 한다.

운문사가 1400여년 전에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이 나무가 제법 컸다고 하므로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되며 고승이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심었다는 구전이 있다.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지정번호 : 민속자료 제78호
 지정일자 : 1988. 9. 23
 소유자 : 김수훈
 소재지 :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이 건물은 임진왜란 전부터 400여년 간 16대에 걸친 내시중가이다. 특징은 안채의 출입을 잘 살필 수 있게 사랑채가 배치된 점과 건물과 담장으로 완전히 폐쇄된 안채와 안마당 그리고 안채가 북향으로 놓인 것 등 일반 사대부의 저택보다 더 엄격한 내외공간 구분으로 출입문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배치한 점이다.

건물들의 배치를 보면 5칸 대문간채가 마을 전체의 지세에 어울리게 서남서향으로 자리 잡았고 솟을대문을 들어 서면 사랑마당의 좌측에는 큰 사랑채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대문간과 사랑마당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사랑마당의 우측에는 토담으로 별곽을 구성하여 사당을 서북향으로 배치하였다. 지형상으로 안채는 남서향 또는 동남향으로 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북북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며 안채를 중심으로 한 안마당과 뒷마당을 튼 꼬자를 이룬 건물들과 토담으로 철저히 폐쇄되어 있다.

안채는 외벌대 장대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아 각주를 세운 정면 6칸, 측면 2칸의 맞배기와집이다. 중사랑채는 정면 4칸의 두 줄백이 집으로 중앙의 2칸은 앞줄이 2칸 마루이고 뒷줄은 통칸 온돌방으로 쓰이고 있다. 구조는 장대석으로 태를 두른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아 각주를 세운 민도리 집으로 상부가구는 오량가에 중도리 안쪽은 우물반자로 처리하였다. 큰 사랑채는 4칸 정면중 좌측 2칸은 사랑대청이고 우측 2칸은 반칸 깊이의 툇마루 뒤쪽에 2칸통의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 장대석으로 갓돌레를 돌린 기단을 설치하고 정면과 대청 주위에는 원주를 세웠는데 주초도 화강석을 원형으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대청 상부는 5량가에 원형 관대공을 놓아 중도리와 장혀를 받았으며 외기쪽만 일부 우물반자를 꾸몄고 지붕귀족은 선자 서까래로 구성하였다.

조선 시대의 특수한 주택 형식을 보이는 내시주택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 때 더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에는 세상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희망2005 이웃사랑캠페인-
그 행복함을 함께하시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는 전화
060-700-1212
www.kbchest.or.kr

사랑의 계좌

농협 731-01-002268

대구은행 021-05-780444-001

예금주(경상북도공동모금회), 전구좌 송금수수료 면제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시중구 삼덕3가 376-25 KSB빌딩 2F TEL : (053) 253-8844~5 FAX : (053) 431-8002